

지역 소식통

정읍, 시내·외권 아스콘 포장 정비·맨홀 단차 보수

정읍시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면 상태가 불량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아스콘 포장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 총 6억 2500만원을 투입해 시내·외권 6개 노선, 3.3km에 대해 주요 간선도로 아스콘포장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로 시내권은 △정읍읍남로(시기소방서~호남고) 0.4km, △삼동 대우드림채~우리터운 0.2km, △수성동 조곡천 1길(버거길~파리바게트) 0.4km, △서부산업도로(연지교~정읍역) 1.0km, △주천삼거리~정일중학교 1.1km이며, 시외권은 △입암초~내장(군고 2호선) 0.2km가 사업대상이다.

또한, 겨울철 잦은 강설과 호우로 인해 도로 곳곳에 발생한 다량의 맨홀(주변)파손과 단차 발생으로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구간도 정비 대상이다.

이학수 시장은 "통행이 불편한 노후 도로 기능을 복원시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보건소-장수보건의료원 고향사랑 상호기부 동참

고창군보건소와 장수군보건의료원 공무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각 기관의 직원 6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600만원 상당의 상대 지지체의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기부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담례품도 주고 받았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기부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의 지지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내로 담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상생협력 모델 구축 '맞손'

부안군·월드비전, 취약청년 자립기반 조성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은 25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취약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이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공간(어울림

쉐어하우스) 및 진로탐색,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기수별로(5개월·14명) 운영되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총 5개의 그룹을 조직해 비건밀키트, 농산물 업사이클링, 디저트, 고향사랑기부 담례품 개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수행하고 전문 기업인의 피드백을 통

해 그룹별 시제품 제작 등 성과물을 창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사업 지원과 상호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취약청년들의 사회지체 형성을 위해 청년지원단으로 부안로컬 JOB센터, 어반비즈 서울, (주)디보션푸드, 이레농원 등 협업기관을 위촉했으며 이후에도 관내 기업과 주민을 연계해 지지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프로젝트 제1기 입학식과 함께 조명환 회장 및 브라더스커피 김성민 대표가 강연을 진행했으며 임시 주거공간인 부안 어울림쉐어하우스를 둘러 봤다.

조명환 회장은 "이번 사업이 군과 기업, NGO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혁신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각 주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힘 있게 발휘돼 민·관·NGO 간 협력의 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의 핵심인 청년들이 부안에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25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학수 정읍시장, "신속집행으로 주요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영상 간부회의 진행

정읍시는 25일 전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학수 시장은 "신속 집행 시, 예산 집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요 사업이 신속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민생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사업들은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오는 28일 개최하는 '2024 정읍 벚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위생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미리 정비하라"면서 "특히 공중화장실이나 음식 판매 부스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민 생계와 관련된 행정처분 시 신중하고 따뜻한 처리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섬마을(죽도) '마을 주치의사제' 큰 호응

고창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마을 주치의사제'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고창 유일의 유인도인 부안면 죽도마을을 찾아 주민 건강 상담활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죽도는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주민 35명이 생활하고 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는 무의촌으로, 정기 여객선도 없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만성질환 관리 등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을주치의사제' 사업은 건강 사각지대 마을을 대상으로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죽도 또한 매년 방문계획을 수립 후 주기적으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죽도 방문은 총 5명(내과·한방 공중보건의 2명, 보건담당자 3명)으로 팀을 구성, 죽도 경로당 이용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측정(혈압, 혈당), 주치의 진로 1:1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치매검사 등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의약품(파스, 눈염양제, 기력회복제)과 보건소에서 직접 제작한 건강꾸러미(14종)을 배부하여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25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ESG 협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형 비건식품 '월드한 포부만두' 시제품 출시를 기념해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월드한 포부만두' 시식 행사 개최

부안군, 영생식품 함초 활용 부안형 비건식품 상품화 추진

부안군은 25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ESG 협업기관(포스코이앤씨·월드비전·(주)디보션푸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형 비건식품 '월드한 포부만두' 시제품 출시를 기념해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군은 식품업계 ESG 확산 및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 대체식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부안형 비건식품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영생식품을 활용한 부안형 비건식품 상품화를 추진해 올해 '월드한 포부만두' 시제품 생산을 완료했다.

'월드한 포부만두'는 1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비건 만두로 부안 갯벌에서 자생하는 함초를 활용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함초는 체내 중성지방을 제거하며 각종 필수 미네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멧그로브순 등과 같이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기후환경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자체 시식행사를 진행해 월드한 포부만두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ESG 협업기관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함초와 같은 영생식품은 환경 친화적 소재로 미래 식품산업의 블루오션"이라며 "비건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5월 열리는 제11회 부안마실축제에서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식홍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보건소,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실시

정읍시가 제14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열린 캠페인은 Y-Teen 사거리, 샘고을시장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건강한 정읍! 결핵없는 정읍!',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점검'이라는 주제로 홍보하며 올바른 기침 예절과 손 씻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더불어 결핵 점검을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건소 결핵실에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리고, 결핵으로 판정되면 복약관리, 가족 접촉자 검진 등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결핵은 결핵균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 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결핵의 감염 경로는 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을 유발하는 호흡기 감염으로 타액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또한, 결핵약에 내성이 없는 환자가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할 경우 전염성은 대부분 상실되며 결핵약을 6개월간 꾸준히 복용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